

##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92)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32 (3)서귀포지역도 예외 아니-(27)생기악  
오름 사면에 갱도 6곳 줄줄이 나 있어

입력 : 2008. 01.31. 00:00:00



▲생기악에서 찾아낸 일본군갱도진지 내부로 취재  
팀이 진입하는 모습(맨 위). 직선으로 된 갱도진지  
내부(가운데)와 갱도 내부에서 입구쪽을 바라 본 모  
습. /사진=이승철기자

위장진지 또는 전진거점진지 역할  
일제 무차별 갱도구축 실상 보여줘

아직까지 서귀포 지역의 일본군 군사시설은 소규모로 확인된다. 수악교가 그렇고 이승악도 마찬가지다. 이는 태평양전쟁 당시 서귀포 지역의 일본군 주둔기간이 제주도 서남부나 서북부, 제주시권에 비해 짧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하나는 서귀포권의 일본군 갱도진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일본군 갱도진지가 확인되기도 한다.

이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생기악(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34번지 일대 · 표고 2백60m)이다. 취재팀은 비고 65m의 나지막한 오름인 생기악에서 태평양전쟁 시기의 일본군 갱도 6곳을 찾아냈다. 생기악 탐사에는 양금석씨(전 제주도의회 의원)가 동행해서 취재팀을 안내했다.

생기악에서 찾아낸 갱도는 북서사면 기슭에 6곳이 나란히 뚫려있다.

생기악의 일본군 갱도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갱도 6곳 가운데 4곳이 10m 정도의 소규모다. 나머지 2곳은 입구와 중간부분이 함몰돼 있어서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생기악의 갱도는 모두 일직선으로 뚫려 있다. 갱도 사이의 입구는 각각 10여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다. 하지만 원래 갱도 입구는 훨씬 앞쪽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보여주듯 현재 확인되는 갱도 입구는 중간부분이 함몰된 형태다. 입구는 대부분 나뭇가지 등으로 막아놓았다.

취재팀을 안내한 양금석씨 역시 "원래 생기악의 갱도는 지금보다 길이가 길었다"고 증언, 이를 뒷받침해준다.

양씨에 따르면 생기악의 갱도는 오름 하단부에서부터 구축됐다. 그런데 경작지가 조성되는 등의 이유로 오름 하단부가 절개되면서 갱도 입구를 포함한 상당부분이 허물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았다면 원래 갱도는 직선으로 20~30여m는 족히 됐을 것으로 보인다.

갱도 내부 벽면에는 간단한 도구만으로 작업했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남아있다. 송이층으로 되어 있는 탓에 거의 다 맨손으로 갱도를 팠던 것이다.

생기악은 어떤 용도로 진지가 구축됐을까.

당시 일본군 군사지도로 제주도내 각 진지 위치 등이 표시된 '제58군배비개건도'에는 생기악 일대가 표시돼 있지 않다. 아마도 미악산 일대를 중심으로 한 주요 진지의 전방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장진지' 혹은 '전진거점진지' 등의 성격으로 갱도를 구축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생기악은 갱도가 구축된 이승악과는 4km정도 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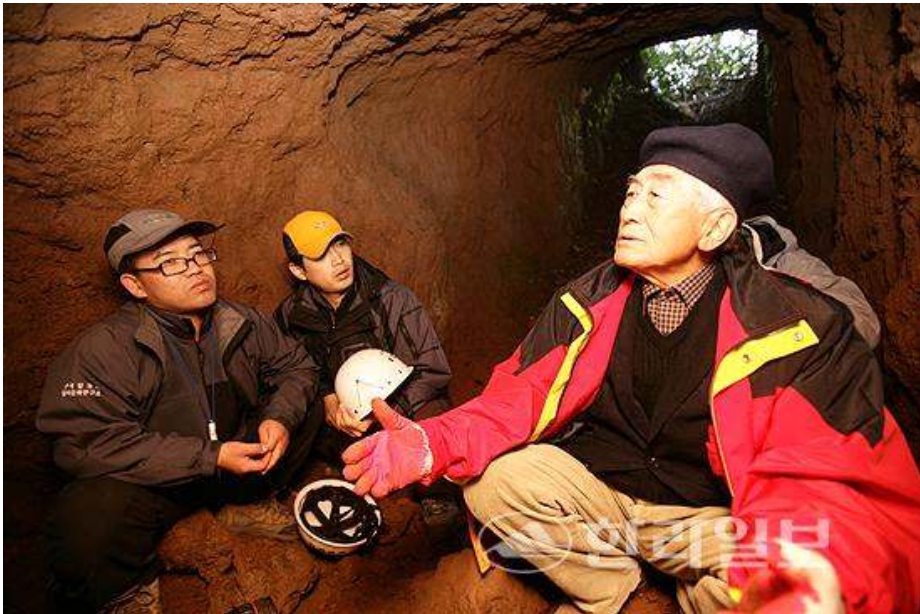
생기악의 사례는 일본군이 제주도 오름에 무차별적으로 갱도진지를 구축하는데 얼마나 혈안이

됐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현장인터뷰/양금석 전 제주도의회 의원]

"갱도 입구에 갯목 쌓아놔 "



▲양금석씨(사진 오른쪽)가 생기악의 일본군 갯도내부에서 취재팀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1945년 위미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던 양금석씨(72·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전 제주도의회 의원)는 생기악 탐사에 나선 취재팀을 안내하면서 "생기악 갯도 앞에 갯목들이 많이 쌓여 있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일본군들이 패망하는 바람에 갯목은 사용도 못했다.

"갯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당시 마을 인민위원회에서 의논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 후 마을 주민들이 갯목을 가져가서 집을 짓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양씨는 또 당시 생기악에 파놓은 갯도는 지금보다 길게 연결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현재처럼 길이가 짧아졌다는 것.

양씨는 당시 일본군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는 명석을 펴서 말리고 있던 절간고구마를 달라고 해서 준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

"1945년 봄 무렵이었습니다. 춤지는 않을 때로 기억하는 데 일본군 5~6명 정도가 집으로 찾아 왔죠. 말리고 있던 절간고구마를 보더니 한 봉지 싸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하고는 오지를 않더군요. 일본군들의 행색은 그리 초라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양씨는 이어 당시 일본군 대대장인지 중대장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생기약 앞 동네에서 영외거 주 했던 걸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생기약의 갱도를 파면서 동네 주민들이 동원되지는 않고 징용병들이 판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윤형기자

※한라일보([www.hallailbo.co.kr](http://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